# 여수시청 롤러팀 회장배 단체전 남녀 동반우승

## 박형상 개인전서 금메달
## 여수충무고 이유진 2관왕

여수시청 롤러팀이 회장배 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여수시청 롤러팀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대항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에서 남일부와 여일부 단체전을 휩쓸었다. 여수시청 롤러팀은 올시즌 첫 출전한 대회에세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박형상·김연추·이성건·이대한은 남자일반부 팀 DTT2000m에서 2:45.635의 기록으로 대구광역시청(2:45.930)에 간발의 차이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소희·이해원·문지윤·심수정이 출전한 여자일반부 팀 DTT2000m에서도 2:57.999의 기록으로 인천 서구청(2:58.977)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여수시청의 활약이 눈부셨다.

박형상은 남일부 개인전에서 500m+D에서 42.474의 기록으로, 이대한은 P5000m에서 8점을 획득하며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에서는 여고부 이유진(여수 충무고)이 2관왕을 달성했다. 이유진은 여고부 500m+D에 출전해 47.871의 기록과, 1000m에서 1:38:650로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성낙준 여수시청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동반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훈련환경에서도 고생해준 선수들이 고맙다. 이 기세를 몰아 전국체육대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최강'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회장기 단체전·개인단식 우승

## 개인복식에선 준우승

순천여고가 올시즌 첫 단체전 정상에 올라 소프트테니스 전국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개인단식 우승, 개인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여고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순창제일고를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순천여고는 결승에서 대전여고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전에서는 김가현(3년)이 여고부 개인단식 결승에서 김예슬(무학여고)을 3-2로 이기고 금메달을, 개인복식에서는 김가현·김여빈(2년)조가 경북조리고의 김진아·문혜원 조에 아쉽게 0-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고부에서는 순천 매산고 김명신·김세준이 개인복식 결승에서 경기 다산고에 0-3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챔프전 진출팀은?

## 프로농구 KCC-전자랜드
## 오늘 '외나무다리 결투'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팀 전주 KCC와 구단 매각을 앞두고 '라스트 댄스'를 이어가는 인천 전자랜드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놓고 29일 '외나무다리 결투'를 벌인다.

KCC와 전자랜드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주체육관에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5차전을 치른다.

KCC가 전주에서 열린 21일 1차전과 23일 2차전에서 연승을 달리며 챔프전 진출을 눈앞에 뒀으나 인천에서 이어진 25일 3차전과 27일 4차전에서 전자랜드가 대승을 거둬 승부가 최종 5차전에서 갈리게 됐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래 5전 3승제에서 1, 2차전을 진 팀은 예외 없이 탈락했는데, 전자랜드가 이 역사를 바꿀 가능성을 열면서 5차전 결과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예상 밖의 대반격을 당한 KCC는 일단 안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게 다행스럽다.

발가락이 아파 1~3차전 결장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송교창이 4차전에 돌아와 경기를 소화한 것도 5차전을 준비하며 보탬이 될 부분이다.

6강 PO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3~4차전에서 전자랜드에 힘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 건 KCC로선 여전히 고민스럽다.

1~2차전 연패 이후 지면 4강 PO 탈락은 물론 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맞물렸는데, 연승으로 반전을 일궈내 내친김에 챔프전까지 가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6강 PO 4경기에 4강 PO를 5경기째 치르는 피로감은 변수로 남아있다.

5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은 5월 3일부터 안양 KGC인삼공사와 7전 4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광주시 연고지 유치 나선 여자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 첫 외국인 선수로 헝가리 출신 바르가 낙점

광주시가 연고지 유치에 나선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첫 외국인 선수로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를 낙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8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받아 바르가를 지명했다.

KOVO와 프로 13개 구단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을 승인하고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창단 혜택으로 외국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은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주저 없이 바르가를 선택했다.

헝가리 출신의 라이트 공격수 바르가는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키 192㎝ 장신이라 일찌감치 1순위 지명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바르가는 2015-2016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루마니아 CSU 메디시나 트르구무레슈에서 뛰었다.

이후에는 헝가리의 파툼 니레지하저에서 활약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현대건설은 야스민 베다르트(25·미국)를 뽑았다. 베다르트는 키 196㎝의 장신 라이트다.

3순위 KGC인삼공사는 옐레나 므라제노비치(24·보스티나)를 지명했고, 4순위 지명권의 행운을 얻은 흥국생명은 캐서린 벨(28·미국)을 선택했다.

벨은 '캣벨'이라는 등록명으로 2015-2016시즌 GS칼텍스에서 뛴 적이 있다.

28일 열린 2021 한국배구연맹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이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순위 지명권을 가져간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외국인 선수인 켈시 페인과 재계약했고, 6순위인 IBK기업은행은 레베카 라셈(24·미국)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 7순위인 GS칼텍스는 카메룬 출신의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28)을 선택했다.

이로써 지난 시즌 V리그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6명 중 1명만 재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세계여자컬링선수권 코로나 확진자 발생

## 한국 대표 '팀 킴'은 전원 음성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국 국가대표 '팀 킴'(강릉시청)은 전원 음성이다.

세계컬링연맹은 28일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사례가 2건 나왔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새로 도착해 격리 중인 선수단에서 나왔다.

23일 첫 양성 사례가 나왔고, 같은 팀에서 25일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팀의 다른 선수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맹은 어느 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가대표 '팀 킴'은 아니다.

김은정(스킵), 김선영(리드), 김초희(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영미(후보) 등 '팀 킴' 선수들과 임명섭 코치 등 한국 선수단은 건강하다.

대한컬링연맹은 "팀 킴 선수들은 전원 음성 확인 판정을 받았고, 체온과 호흡기 특이 사항도 없다"며 "현재 격리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린다. 이 대회에서 6강 안에 들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검도회, 19개 공인도장에 특별지원금

## 50만원씩 950만원 지원

광주시검도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검도장에 특별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상범 광주시검도회장은 28일 검도회관에서 검도장 관장,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도장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특별지원금은 광주시검도회 소속 공인도장(센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고통에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지급됐다.

광주시검도회는 특별지원금(950만원)을 광주 19개 공인도장에 각 50만원씩 지원했다.

김 회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공인 관장님 등의 각고의 노력으로 검도장들이 굳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광주시검도회와 검도관이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위기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비와 당신의 이야기 |
| 2관 | 내일의 기억, 자산어보 |
| 3관 |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넛 : 불의 고리 대폭발<br>내일의 기억,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br>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
| 4관 | 비와 당신의 이야기 |
| 5관 | 더 스파이 |
| 6관 | 비와 당신의 이야기 |
| 9관 | 미나리, 서복, 고질라 VS. 콩 |
| 7관 씨네커플 |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br>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노바디 |
| 8관 씨네커플 | 서복, 어른들은 몰라요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